

#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로 균형발전 초석”

### 전남도, 프로젝트 추진 공식화 서울~제주 고속철·남부권 신수도 이재명 후보 추진 의지 밝혀 주목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호남·영남·제주를 묶는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와 관련 전남도가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와 남부권 신수도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왕인실에서 2월 정례조회를 열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위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기반으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자는 원대한 꿈의 실현을 다짐했다.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는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국무회의의 성격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전남도가 건의했다.

이미 영호남은 친환경 조선산업벨트와 우주산업벨트, 남부권 관광개발, 남해안 탄소소재산업벨트, 방사광가속기 등을 함께 할 협력 파트너로서,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 초광역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환태평양시대 관광수도를 주도할 '남부권 관광개발'은 당초 전남도가 구상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가 구체화된 것으로 올해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 6858억원을 들여 이들 5개 시·도에 10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문화관광체육부가 올해 기본구상 계획에 관광개발 사업비 2014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남부권 관광개발 권역을 확대해 관광도시 제주와 연계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 있어 6개 시·도가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 건의했다.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 제주까지 서해안축이 완성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강호축 등을 통해 동해안축과 연결함으로써 국토 H축을 이뤄 전국이 생활권으로 묶이게 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완성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남해안남부권이 북극항로가 열릴 시대를 앞두고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대륙의 기점 역할도 하게 돼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전남과 경남의 경계에 서울, 세종에 이어 제3의 '신해양-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신해양-환경수도'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부권에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의원·직원 확진 광주시의회 임시회 차질

### 전남도의회, 9일 새해 첫 임시회

광주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올해 첫 임시회를 진행중이지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 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되면서 임시회가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광주시와 산하 기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는 의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전날 가족 확진으로 격리되고 이 전문위원과 식사한 위원회 소속 의원·직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격리된 데 따른 조치다. 접촉한 전문위원과 의원·직원은 1차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의회는 의원·직원 다수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9일 예정인 위원회의 기관 방문도 취소할 예정이다. 의회는 11일 본회의도 화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설 명절 연휴 직전부터 의원들과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돼 임시회 진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9일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새해 첫 임시회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의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임시회 개최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도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10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대변인은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한 의정활동에 능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남도문화·경관 어우러진 관광지 명소 가꾼다

### 전남도, 30억 들여 '남도특화' 사업 공모

전남도가 여왕 남도의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숨은 관광지를 찾아 관광명소(핫플레이스)로 가꾸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남도특화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특화경관 조성'은 경관이 있고 호기심을 끌 만한 특색 있는 생활환경 등 남도의 문화가 스며있는 곳에 창의적 콘텐트를 입혀 '블루 투어'를 견인할 새로운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지역 주민·전문가 참여형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웰빙을 위한 소소한 여행, 모바일에 의한

여행플랫폼 변화 등 언택트 시대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2월 중 시·군 공모에 나서 건축과 디자인, 경관, 마케팅,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1차 서류심사와 발표, 2차 현지 평가를 거쳐 후보지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선정하는 한편 경관위원 65명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경관 무자료문단'을 활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광양 망덕포구와 신안 팔금도 일원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색채 정비 등 이미지 개선사업과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90%

광주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6억원을 들여 노후 중소기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1-3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3월 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올해 시행 예정인 소규모 대기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정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기 4종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진도 접도대교 지방도로 본격 추진

### 접도~의신면 연결...9년만의 결실 국가어항 수품항 숙원 해결 기대

전남도가 진도군과 국가어항인 접도 수품항 어민의 숙원사업인 접도대교 신설을 군도에서 지방도로 조정해 본격 추진한다. 접도대교 신설사업은 진도 접도에서 의신면을 연결하는 군도 6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통한 어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방도 803호선으로 조정해 추진하게 됐다.

진도 접도 수품항은 전국 물길 생산량 1위 지역이다. 수품항에서 발생하는 물품량의 유일한 이동

통로인 기존 접도 연도교는 DB-18등급, 통과하중 32.4t 교량으로 폭이 좁고 노후해 대형차량 통행이 위험하다. 2013년부터 접도대교 신설이 대두된 이후 9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4

전남도는 완도-고흥 간 지방도 2개 노선 48.5km가 국도로 승격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방도 지정·폐지 등 노선을 조정했다. 지난해 시·군 도로 8개 노선 50.3km에 대해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도 임화면 연동리에서 수품항까지 21.9km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됐다.

접도대교는 현재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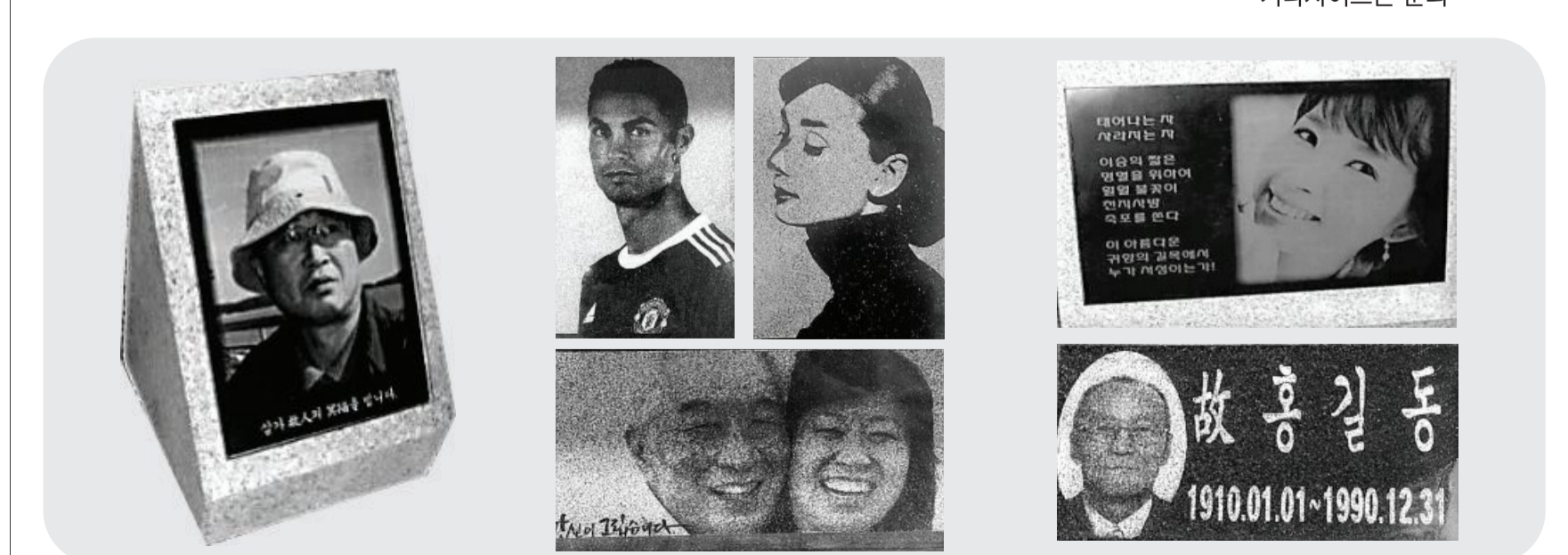
업비는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지방도 정비 예산 17억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접도대교가 준공되면 수품항까지 대형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30년간 99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유발효과 250억원, 고용·임금 유발효과 105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도 803호선 노선 조정과 접도대교 건설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건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나는 떠났고, 내기 살던 세상의 흔적을 오석의 그리고 싶다

- <오석의 대표적 장점>
- ☑ 영구적    ☑ 종량감    ☑ 아득함    ☑ 신    ☑ 불변함



제이와이석재 문의전화 | 062)464-3466

##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포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 틀액자>  
아크릴, 유리 등 다른물질에 인쇄 후 부착

↓

<틀 자체에 각인>  
(오랜시간 변함이 없음)

전(before)

후(after)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작업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컬러는 불가능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사용자>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납골당 수목장 표지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